

“제2기 마홀문예大學에 초대합니다”

포천시민 선착순 60명 대상 文藝수업

포천문인협회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4월7일부터 제2기 마홀문예대학을 개강한다.

제2기 마홀문예대학은 포천시민 중에서 문학수업을 원하는 시민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실시하여 제10강 모두를 이수하면 대진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마홀문예대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글쓰기 공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4월6일까지 <http://cafe.daum.net/pochunmunhak>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입학원서 서식에 따라 접수하거나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대진대 평생교육원 539-1241).

마홀문예대학 수강료 전액은 포천시에서 후원하며 포천시의회, 대진대학교,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신문, 마홀문화회, 마홀독서회, 참숯넷 등이 후원하고 있다. 강의일정은 4월7일부터 6월16일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며 10강중 5월 14일 문학기행과 시낭송 행사를 실시하며 시낭송집 발간 및 포천문학제7집의 특별부록 형태로 지상강좌 평생교육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대진대 평생교육원 539-1241).

주요 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강 4월7일 개강식, 시의 이해와 시작법(조계숙 대진대 교수) ▶제2강 4월14일 시작작 기법(홍은택 대진대교수) ▶제3강 4월21일 소설의 요소들(장운수 대진대교수)

▶제4강 4월28일 소설의 이해와 감상(김성렬 대진대교수) ▶제5강 5월 12일 미술의 이해와 감상(김진곤 화가) ▶제6강 5월19일 드라마의 이해와 작법(박정근 대진대교수) ▶제7강 5월26일 향토의 역사(이석구 장원호대진대교수) ▶제8강 6월2일 수필의 이해와 작법(권 호 대진대교수) ▶제9강 6월9일 수필작법(황정삼 나사렛대 교수) ▶제10강 6월16일 인터넷문화와 문화(김성렬 대진대교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극단한내가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작품으로 무대에 올릴 '해가지면 달이뜨고'.

전국연극제 예선작 '해가지면 달이뜨고'

극단한내 포천연극의 진수를 선보인다

극단한내(대표 이희용)는 오는 4월2일 토요일 오후 7시30분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작품으로 '해가지면 달이뜨고'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소위 서민극시리즈로 알려졌다. 해와 달처럼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사랑과 치유에 관한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극은 북에 고향을 두고 온 평양 만두의 대가 만월과 소매치기 전과범 성준, 생선가게 여주인 동희와 소아비 동생 동수를 통해 일상의 파기와 같은 삶의 갈등과 온정으로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유쾌하고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이 연극은 자연스럽게 박장대소하며 극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한 움큼의 눈물을 빼게 되는 마술적 힘을 느낀다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무대위에서 선보이게 도리 극단 한내 이희용 대표는 "세상이 살아가기가 더욱 어렵고 힘이 드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뮤지컬 드라마

'장보고' 포천 공연

해상왕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뮤지컬로 감상한다.

뮤지컬 드라마 장보고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3시, 7시 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장보고는 환상적인 의상과 무대장치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통일신라시대 중국과 일본의 해적들을 물리치고 황해에 평화적인 동아시아 무역 상로(商路)를 구축한 장보고의 활약을 보여준다.

우리 전통 춤사위가 어우러진 역



뮤지컬 드라마 '장보고' 포스터

동적이면서 화려한 안무, 스펙터클한 무대와 특 수 효과, 전투와 무예 장면들이 볼 거 리다. 공연 시간은 100분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문의는 포천반월아트홀(530-8938~40)로 하면되고, 관람료는 무료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평화 · 화합 · 통일의 '길(Road)'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주제로 선정

분단의 현실과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의 주제와 일정, 장소가 확정됐다.

포천시는 지난 10일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길(Road)'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일동안 주 행사장인 포천 반월아트홀 전시장과 산정호수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제는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긴장을 세계에 알릴 평화의식을 고취하고 ▶국내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포천시는 이를 기점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미술제 주요 행사로 먼저 '아시아 유명작가 초대 미술전시회'가 국내 유명 작가 및 포천지역 작가 40여명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및 아시아 이외 지역 작가 30여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작품 등 모두 100여 점이 전시된다. 또 국제미술세미나 ▶현대미술의 조류와 지역문화 ▶21세기 현대사상에서 차지하는 아시아리즘 등을 주제로 열린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퍼포먼스, 전통무용, 환경리셉션 등이, 체험 행사로 깃발 만들기, 벽화 그리기, 활흙 만들기, 자화상 그리기 등이 마련된다.

포천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을 위원장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포천시는 이를 기점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미술제 주요 행사로 먼저 '아시아 유명작가 초대 미술전시회'가 국내 유명 작가 및 포천지역 작가 40여명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및 아시아 이외 지역 작가 30여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6회 포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

환경오염실태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소재로

포천시가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1세기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6회 포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환경사진과 글쓰기(산문), 포스터 등이며, 접수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작품소재는 ▶환경사진의 경우 환경오염 사고 및 환경관련 불법 행위,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글쓰기(산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체험담이나 보람을 느꼈던 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절약형 생활 모습 ▶포스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 또는 환경과 관련된 경고성 메시지나 환경오염을 극복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면 된다.

작품 규격은 ▶환경사진의 경우 5



지난해 포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

“X7” 규격의 흑백 또는 컬러사진(수량 제한 없음) ▶글쓰기는 20자 원고지 15~20매 ▶포스터는 30cm×56cm 내외다. 포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 시청 환경보호과 ☎(031-530-8249)나 포천 의제21실천협의회 ☎(031-533-3306)로 문의하면 된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이혜조문학회장 응을표

세계속 포천시 建設위해 市民大鐘은 '自由鍾'

愛國계몽사상가 이해조 연구의 구심체 역할

지난 1월 창립된 이해조문학회(회장 응을표)는 '시민대종을 자유종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포천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혜조문학회 응을표 (사진)회장으로부터 이해조문학회의 활동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들었다.

홍 회장은 "이혜조문학회 창립배경에 대해 '이혜조님은 단순한 소설작가가 아니라 근대사상이자 철학자이며 언론인, 교육자, 사상운동가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분이 포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해조님을 애국계몽문학인으로 추앙하여 기념비를 세우자는 여론 등에 힘입어 이해조문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혜조문학회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제대로 알고 포천시민의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학과 교수와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하게 되었다.

회원의 성향에 대해 홍 회장은 "회원들은 각기 영역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해조라는 분이 우리가 기리고 본 받아야 하고 이해조님의 사상을 새롭게 재조명하지는 순수한 뜻을 함께 했으며 회원간의 긴밀한 친목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혜조문학회'를 '동농문학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홍 회장은 "비록 그분의 호를 불러 예를 갖추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인줄은 알지만 이해조님은 단순히 기리고 따르는 후학 몇 사람의 존경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세계속의 포천건설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해조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학회 명칭을 이해조문학회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혜조문학회의 2005년 주요사업에 대해 홍 회장은 "이혜조님의 정신적 자사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해가 우선적인 사업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1개의 작품을 감독하고 토론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조님은 100년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40편의 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조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정기모임을 통해 '자유종'과 '빈상'을 공부했다.

홍 회장은 올해 안에 이해조님의 사상과 행적 등을 정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농 이해조기념사업회를 법인화 하여 체계적인 이해조 브랜드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계획중이다.

홍 회장은 또 "오성과 한음이 당파를 초월한 신의와 우정을 보여주었다면 이해조님은 일본의 침탈로 인해 100년전인 1905년 일본이 외교권 보호하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백성들이 자유각성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애국 국민으로서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민족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애국계몽운동을 재촉하는 자유종을 1906년도에 발표했다."

홍 회장은 100년전 상황이나 지금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의 자발적인 근대화를 막았던 일본에 대해 이해조 닌



응을표 이혜조문학회장

은 여자와 시민 할 것 없이 민족교육이 필요한 시대를 강조하고 1908년 포천에 청성보통학교를 설립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실천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애국계몽운동은 오늘날 월드컵 4강 진출, 정보화 대국, 생명과학 입지 구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종을 자유종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홍 회장은 "시민대종은 포천시의 비전과 조국에서의 역할, 세계적인 도시의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혜조님이 100년전 일본의 식민지적 침탈행위의 도전을 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자유종을 발표한 것처럼 포천시가 오늘날 역사와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대종을 제작하고 이를 자유종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혜조문학회장으로서 회장 본인의 소개에 대해 홍 회장은 "포천중문의과대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포천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의 역사중에서 근·현대사를 주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건강문제를 연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포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포천 구질조를 식품으로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관광과 건강을 연계한 '헬스 투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혜조님의 활동시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시기로서 우리 힘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이해조님으로부터 찾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오늘날 독도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혜조문학회를 통해 이해조님의 활동상황을 발굴하여 포천의 역사에 풍부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포천시의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市 상징 문구 단일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로

포천시는 지난 15일 시 상징 문구를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로 단일화해 사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 영문으로는 "The City Where Nature and People Meet"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늘)푸른 도시", "산바람 물소리 내 사랑 포천" 등이 시 상징 문구로 혼용됨에 따라 도시의 정체성과 대내외의 이미지 표출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시 상징 문구를 단일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함이 돋보이는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는 포천시가 지향하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자족적 전원도

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수도권 동북부의 관광휴양 중심도시'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특히 문구 뒤로 이어지는 긴 직선은 포천시의 발전된 미래상을 여운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평가다.

이 문구는 시 본청과 읍·면·동청사 외부, 43번국도 대형아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변 전광판, 관광안내판 등에 사용돼 앞으로 시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정구호는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 ▶"일류의 자치경영" ▶"늘 푸른 도시 포천의 미래는 당신과 함께!" 등 세 가지 표현이 모두 사용된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포천 직두리 소나무의 명칭이 공모 결과, 부부송(夫婦松)로 정해졌다.

직두리 소나무

부부송(夫婦松)으로

이달 중 문화재위원회결 통해 확정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직두리 소재 소나무의 명칭을 "포천 직두리 부부송(夫婦松)"으로 정하고 이 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직두리 소나무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28 종류의 이름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 직두리 부부송(夫婦松)이 최종안으로 정해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91번지에 위치한 이 나무는 당초 문화재청에 의해 '포천 직두리 처진 소나무'로 명명됐으나 '처졌다'라는 말이 어감 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의 대표적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 전경.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26)

포천의 세 충신(忠臣)

조선조 500년 동안 충신정려(忠臣旌闈)를 받은 분은 세분이 있다.

일컬어 삼충신이라 한다. 첫째가 세조조 상왕 단종의 복위 운동을 꾀하시다가 같이 계획했던 동료 김질(1422 : 세종 4년 ~1478 : 성종 9년)~(내촌면 읍현리에 묘가 있음)의 배신과 고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흑흑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충신의 절개를 지킨 사육신의 한 분인 유응부(兪應孚) 선생이시며, 둘째가 선조조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금산군수로 의병을 모집하여 향전하시다가 순절한 권중(權宗)선생이시며, 셋째가 인조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

입금을 호종하여 남한 산성에서 천나라 군사와 싸워 큰 전과를 올리고 순국하신 조득남(趙得男) 장군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세분에게 충신정려(忠臣旌闈)를 하사하고 그 충성심을 길이 고자 하였다.

공교롭게도 충신 유응부선생께서 출생하시고 충신정려가 있는 포천 땅에 충신 유응부선생을 배신하고 고변한 김질(金)의 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유응부선생께서는 소흘을 무봉리에서 출생하셨는데 선생의 자(字)는 신지(信之), 선장(善長)이셨으며, 호(號)는 벽량(碧梁)이시다.

키가 크고 장엄하고 힘이 강하였으며 형제 우의가 돈독한 효자로 형제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송우리 장을 오고 가시며 활을 쏘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특히 가난하고 청백하여 중국에서까지 충정의 노래가 퍼졌다 한다.

무과에 급제하고 평안도 절제사(지금의 군단장급) 1455년(세조 1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內職)에 이르렀다.

님의 충정은 남효온(南孝溫)의 사신전에 자세히 전한다. 소흘을 무봉리에 충목단이 있어 님의 시호 충목공과 함께 같이 전한다. 조득남 장군은 화련면 화성리에

서 출생하셨는데 기력이 장대하고 용력(勇力)이 뛰어나 주위의 축망받는 가운데 성장하여 광해군 13년(1621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정묘호란시 왕을 강화까지 호종하고 유용치난을 평정하고 명나라 모문룡의 약탈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으며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에서 결사 항전한 충신이었다.

권중(權宗) 선생은 소흘을 고모리 하성릉에서 의병을 소집하여 조현 고경명 등과 함께 경사 항전하였으나 분사하였다. 아들 준(峻)도 함께 전사하였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위 세분과 같은 충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 역사상 고려나 조선 같은 왕조나 삼국의 왕조가 그토록 수백년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충신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선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응부, 권중, 조득남 세 충신의 동상 하나 없고 세 충신을 길이는 행사파로 없으니 내 고향 포천을 선비의 고장이라 하겠는가?

필자 연락처 02-932-2434